

70 戦後國土政策の檢證 戦후 국토정책의 검증

1994년 / NIRA / 총 2권, 각 권 263면, 423면 / 02.10-08 총91전 1996

이 책은 1994년 일본의 NIRA(종합연구개발기구), 즉 일본의 국토연구원격인 곳에서 발행한 보고서다. 책 이름은 「NIRA연구보고서」로 되어 있으나 부제에 밝힌 바와 같이 「戦後國土政策の檢證」에서 알 수 있듯 2차대전 후 50년 간의 국토정책을 정책담당자로부터의 증언을 중심으로 상, 하 두 권으로 나누어 구성하고 있다.

이 작업을 하게 된 계기는 경제기획청의 小林良文(고바야시 요시부미)의 발의로 동경대학의 小早川(고하야가와) 교수와 일본도시센터의 檜模(히마끼), 국토청 관계관들의 합세로 ‘地域開發制度研究會(지역개발제도연구회)’란 이름으로 1989년부터 활동을 하게 된 것이다. 또한 이 책 하권 권말에는 1940년~1994년까지의 일본의 국토정책사 연표가 첨부되어 있다.

이 사람들이 ‘지역개발제도연구회’란 조직을 갖게 된 것도 따지고 보면 전쟁 전 내무성에 있었던 국토국(國土局)의 ‘내정사연구회(內政史研究會)’가 효시라 할 수 있다. 이 연구회에는 1963~1977년까지 14년 간에 걸쳐 60명에 가까운 지방국 관계자들과 인터뷰한 기록이 있었다. 이 기록은 전쟁 전 일본의 내무관료들의 생태를 아는 데 결정적인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다.



■ 上권

서장(序章) 전후 국토정책의 검증과 의의

1장 1절 신전총(新全總) 책정의 배경과 전후 SOC 정비 경위

2절 전후 지역개발 행정의 흐름과 신전총

3절 신전총 책정의 작업경과와 이론구축

종합정리

■ 下권

2장 1절 일전총(一全總)의 성립과정과 지역개발론

2절 전후 국토정책을 둘러싼 시대적 요청

3절 정치가 다나카의 국토정책 사상의 전개

논점정리

3장 1절 일본열도 개조론을 정리한 다나카 내각의 발자취

2절 국토정책과 수도권 정비의 변천

3절 전후 국토정책의 변천과 그 과제

4절 일본의 국토정책의 변천과 열도개조론

논점정리

4장 최종 총괄

내용이 너무 흥미진진하다. 사실 우리는 5·16 혁명 후 종래의 국토종합개발계획법도 사실은 일본 것의 복사였고, 국토계획 자체도 일본을 모델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일본의 이 실무자들의 토로는 크게 참고될 것으로 믿어진다.

이 책과 유사한 것으로는 1994년 일본경제신문사에서 下河邊(시모카와베)의 인터뷰를 남기기 위한 출판물이 있다. 시모카와베는 1980년 필자의 요청으로 국토청 차관 때 우리나라를 방문해 국토연구원에서 특강한 일도 있다.